



# ‘건방진 여자들’ 뜬다

“고라지 하고는...” “맘에 안 들어.” “다쳐.” 다양한 유행어를 양산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MBC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 주인공 ‘안나 조’ 역할을 맡은 한예슬(24)의 대사다. 건방짐을 넘어 오만방자한 캐릭터 ‘안나 조’가 팬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환상의 커플’ 애청자라는 김하나(25·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기존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싸가지 없는’ 캐릭터가 신선하게 느껴진다”며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신하고 단아한 여자들이 사랑받았던 방송사에 ‘건방진’ 여성들이 뜨고 있다.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렸던 예전과 달리 빨랄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젊은 세대가 주 터깃증이 되면서 생긴 변화다.

특히 남성, 여성 차별이 사라진 요즘 신세대들에게는 암전하고, 순종적인 여성으로 오히려 내용을 떠는 것으로 보여 비호감이 되기 심상이다. 현영, 이효리 등 성인이 강하고 텔털한 이미지의 여자 연예인이 사랑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KBS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의’(최정원 분)도 건방진 여자의 전형이다. 명품을 좋아하고, 멋내는 것을 좋아해 ‘퀸장녀’의 전형이라는 비난까지 받아야 했던 미칠이는 결혼 후에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명절을 앞두고 남편에게 “난 명절엔 각자 자기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 기분 좋은 명절날, 남의 집 가서 눈치 보며 기분 잡쳐야겠어?”라는 폭탄 대사를 날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사실, 미칠이의 말이 틀린 것은 없다.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과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적인 가치들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미칠이가 괴씸하다”는 의견으로 나뉘며 설왕설래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연폭포, 서경덕과 함께 송도3절로 일컬어지는 ‘황

진이’도 드라마에서 고전적인 여성상이 아닌 당당한 여성상을 표현한다. KBS드라마 ‘황진이’의 ‘진이’(하지원 분)는 첫사랑 은호를 잊은 상처를 겪은 후 카리스마 넘치는 기생으로 변신한다.

뛰어난 글솜씨와 음악으로 외국 사신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하면, 기녀의 신분으로 양반인 벽계수에게 “신분이 천하다하여 듣는 귀도 천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 권세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는 법이지요”라며 따끔한 일침을 놓기도 한다.

여자 연예인들에게는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일종의 변신의 기회가 되기도 한

다. 그동안 청순하고 미련스럽게 착한 캐릭터를 맡았던 성유리는 KBS드라마 ‘눈의 여왕’에서 차갑고 건방진 부잣집 딸 ‘보라’로 변신했다. 쇼핑을 하다가 자기 밤에 들지 않은 직원을 해고하고, 가정부의 딸이 자신의 명품 옷을 걸치자 가위로 옷을 갈기갈기 잘라버린다.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이보영은 KBS드라마 ‘개임의 여왕’에서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여자 강은설로 변신한다. 은설이 복수를 위해 원수의 딸인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자 이신진(주진모)의 음모를 눈치챈 뒤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복수의 게임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로 18일 첫 방송에서 시청률 11.5%를 기록하며 상쾌한 출발을 했다.

전남대 사회학과 장미경 교수는 “드라마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 캐릭터의 성격이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주체적이고 자기 주장이 당당한 여성의 주목받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 한예슬·성유리·이보영 등

## 드라마 당찬 이미지 인기

다. 그동안 청순하고 미련스럽게 착한 캐릭터를 맡았던 성유리는 KBS드라마 ‘눈의 여왕’에서 차갑고 건방진 부잣집 딸 ‘보라’로 변신했다. 쇼핑을 하다가 자기 밤에 들지 않은 직원을 해고하고, 가정부의 딸이 자신의 명품 옷을 걸치자 가위로 옷을 갈기갈기 잘라버린다.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이보영은 KBS드라마 ‘개임의 여왕’에서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여자 강은설로 변신한다. 은설이 복수를 위해 원수의 딸인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자 이신진(주진모)의 음모를 눈치챈 뒤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복수의 게임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로 18일 첫 방송에서 시청률 11.5%를 기록하며 상쾌한 출발을 했다.

전남대 사회학과 장미경 교수는 “드라마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 캐릭터의 성격이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주체적이고 자기 주장이 당당한 여성의 주목받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1 제17611호 2판

2006년 11월 25일 토요일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许宰皓

시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판권국내

대표팩스 222-4918 충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29 <팩스 222-8005>

정치부 2200-616 광고국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부 2200-552

사회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문부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시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본사는 신문운송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방송기에 시사풍자 개그가 유행하고 있다.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형님뉴스’ 코너.

# ‘시사 풍자 코미디’ 전성시대

## ‘3김’ ‘대변인’ ‘형님뉴스’ 등 유행

“무슨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짐값은 더욱 오르고 서민은 죽을 맛이요, 백성이 무슨 노리개요, 똑바로 좀 하시오.”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이 아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대사 중 일부이다.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시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MBC ‘개그야’의 ‘미인본색’ 코너는 지난 13일과 20일 방송에서 연이어 부동산 문제를 소재로 삼았다. 이 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SBS ‘개그야’의 ‘미인본색’ 코너는 지난 13일과 20일 방송에서 연이어 부동산 문제를 소재로 삼았다. 이 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의 최근 심상치 않은 행보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직설적으로 풍자한다.

KBS도 최근 풍자 코미디를 대폭 강화했다. ‘폭소클럽’은 ‘폭소클럽2’로 새롭게 단장해 25일부터 KBS 1TV에서 첫 방송한다. 사회에서 이슈가 된 사건과 연관된 단체나 사람들을 대변하는 형식의 시사코미디 ‘대변인’ 등이 대표적인 풍자 코너.

KBS 2TV가 22일 신설한 ‘웃음 충전소’의 ‘대안제국’도 정치 풍자 코미디이다. 이개인이 황제로 등장하는 이 코너의 첫회는 부동산 문제를 소재로 삼았다. 김구라가 법무대신, 장동민이 문화관광부 대신역을 맡아 좌충우돌하는 회의를 하고, 이를 통해 서민의 고충을 간접적으로 대변한다.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형님뉴스’도 풍자 코미디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조직폭력배들이 이 뉴스를 진행하는 형식의 이 코너는 “~가 ~다워야 ~지”라는 유행어와 함께 풍자를 시도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이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